

테마칼럼

생명과학

여성과학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이근택

하루쯤 쉬어 볼 요량으로 따라나섰기 때문인가,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하여, 태평양 바닷물에 뛰어들어 온 원주민 아이...

가을 문학 기행을 다녀와서

에서는, 배고픔과 여행의 설렘, 혹은 알지 못하는 동행자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같은 것이, 참기름이며 고추장이며 여러 가지 나물들이 보리밥과 한데 어울려 버무린, 그 북고 고소하고 씹새로운 비빔밥에 함께 섞여 풀어져서, 너나없이 즐겁고 흥성흥성하였다.

고 웃음 또한 끝내 헛헛하였다. 잠시 후, 그늘에 자리 잡은 일행이 잠시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은 냇가로 내려가 물수제비를 뜨고, 교사들은 나무에 매달려 어느 쪽을 쪼아야 할지 고민하는 딱따구리처럼, 고개를 가우똥가우똥, 다음 목적이인 서점주의 생각에 도착할 시각을 계산하느라 시계와 일정을 번갈아 보고 있을 무렵이었다.

다." 단단하고 두꺼운 겹피에 동상 걸린 늙은이의 손등처럼 짙게 갈라진, 서어나무 한 그루가 망연한 표정으로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두들 이 말을 되새기는 동안, 햇살이 자꾸만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와 갈매기 모양의 빛깔들로 펼쳐지더니, 때마침 어떤 신비롭고 경건한 기운이 스쳐 지나간 듯, 그 때문에 내내 한눈만 팔던 아이들이 하나 둘 제 어머니의 손을 잡거나 주변을 맴돌며 제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종교칼럼



현지

덕치로써 민정(民政)이 소통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하고 있다. 이 세상 민심을 움직이는 세 종류의 무리가 있다. 그들을 곧 장(將)이라고 말하며 요점만드는 장이라 부른다. 덕장(德將), 지장(智將), 용장(勇將) 이들이 한 나라에 수장(首長)이 되어 국민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가치의 법

움직여 장풍 속에 깊이 숨겨 좋은 아기 돌 반지까지 깨내놓게 하여 IMF를 빠른 시간에 극복하였고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남북문제를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냈지만 안타깝게도 복(福)이 부족하여 햇볕정책이 실패를 가지 못했다.

라 그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덕치(德治)로써 민정(民政)이 소통되는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장을 원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우리나라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요,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장을 뽑아 놓은 선거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연일 말도 많다. 덕치의 세상은 백성이 임금의 덕을 칭송하며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시절을 예언했다. 중국에서는 요순시대라 한다. 요임금은 연로하여 국무를 보기 어려웠다. 그는 충신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어린사람을 추천하라 하였다. 신하들은 시골에 숨어 살던 허유라는 선비를 추천하였다. 그를 천자로 삼자는 공문회의 소문이 허유의 귀에 들렸다. 그는 바로 기산에 숨어들어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다 하여 계곡물에 귀를 씻었다. 그때 천군의 소부가 소를 몰고 오다 허유가 귀를 씻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서 귀를 씻고 있는 중일세.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런가? 요임금이 천하를 나에게 넘겨주겠다하네. 소부가 그 말을 듣고 소에게 물을 먹이려다 말고 상류 쪽으로 더 올라가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었다. 허유가 이상하여 아니 소에게 물을 먹이려던 여기도 되지 않은가? 소부가 대답하기를 더러워진 귀를 씻은 물을 내소에게 먹일 수 없어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서이네. 하였다. 허유와 소부의 고사의 이야기는 요즘 정치나 권력을 갖겠다는 분들의 온갖 비인간적 이전투구의 작태를 보면 동화처럼 생각된다. 부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 가치를 말씀하셨다. 자주모여 바른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몸소 지키는 일,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위아래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일, 법을 받들며 삼가해야 하고 예의를 지키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순종하는 일, 조상제사와 미풍양속을 지키는 일, 부자지는 정숙진실하며 웃고 농담의 말도 음란하지 않는 일, 성직의 수행자나 계행이 청정한 이를 존경하고 보호하며 공양 올리기를 소홀하지 않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이 일꾼 가치법을 실행하면 부강하고 어떠한 적도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없어 태평성대하다고 하셨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IT 선거 시대, 이젠 젊은 유권자만의 몫인가?



정창현

급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치러져 벌어진 후보자의 당선으로 끝났다.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잔잔한 여운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를 들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는다. 이 또한 아이러니한 정치현실이며, 정치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는 특정계층, 즉 오피니언 리더 등의 전문요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유권

자에게는 투표참여만으로 만족하고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의 의견 개진 등 참여는 단지 이습 우회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가 곧 잘 인용된다. 그도 그렇듯이 일반 유권자에게는 정치 참여는 그들의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돌이켜보자! 10월 초경에 IT산업의 거장인 스티브 잡스의 타계에 따른 잡스의 효과와 한국의 빌 게이츠 안철수 원장의 등장은 IT선거 환경 변화에 또 다른 종속변수로 작용하여 이번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에 의한 선거의 혁명을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T선거 사회분위기는 IT 세대의 유권자가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학교, 직장, 지하철, 가정 그리고 소모의 등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관련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토론하여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장(場)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것이 e-폴리티컬스의 바람 그 위력이다. 세기의 석학 엘빈 토플러는 3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 "개개인간의 통신교환을 통한 공동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세상을 바꾼다". 이 같은 예언이 바로 이번 선거의 SNS가 아닌가 싶다. 대중의 정치참여는 IT선거를 통하여 기존 정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작은 한강의 기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번 IT선거는 우리 정치 환경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이젠 우리 정치에서도 밝은 비전이 보인다. 이제 제19대 총선을 약 160여 일 남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IT선거를 실천했던 젊은 유권자 의식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선

거분위기로 조성되고, 특권층만의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를 감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등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IT선거, SNS를 통한 선거·정치문화, 즉 유권자의 정치참여의 장이 열렸다. 국민을 위한 정책·공약, 후보자의 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개혁적인 선거의식이 정치 혁명으로 이어지도록 각계각층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단지 젊은 유권자만의 몫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IT를 통한 정치참여, 다시 한 단계 높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리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양대선거를 준비한다면 또 다른 유권자는 다시 투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정치에 대한 국민 기대도 한층 높아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선관위 관리계장>

시설

급증하는 지역 비정규직 대책 서둘러야

광주와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40만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 대 80 사회'를 넘어 '1 대 99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 근저에 비정규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필수적이다. 노동계 요구에 정부는 지난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보험의 3분의 1 지원 등에 그치고, 임금격차 해소 등 알맹이는 빠진 상태다. 야당이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정부는 이후 임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켰다. 월급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인 120만 원 안팎이다. 그나마 해고의 공포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

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들도 기록권 유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 대 80 사회'를 넘어 '1 대 99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 근저에 비정규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필수적이다. 노동계 요구에 정부는 지난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보험의 3분의 1 지원 등에 그치고, 임금격차 해소 등 알맹이는 빠진 상태다. 야당이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정부는 이후 임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켰다. 월급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인 120만 원 안팎이다. 그나마 해고의 공포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

대학들 예산 '뺑뺑기'로 등록금만 올렸더니

대학들이 지출은 높게 잡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과도한 등록금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3월 35개 대학(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연평균 지출에서 4천904억 원, 등록금의 수입에서 1천648억 원 등 총 6천552억 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액 대학등록금의 원인이 대학들의 자의적인 예산편성 때문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등록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3배나 웃돌아왔다. 지난 1993년 안전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

로 치솟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증가했다. 대학들의 비리 또한 심각한 상태였다. 감사원에 적발된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지만 90명에 달하고, 이사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리도 많았다니 대학들이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학교를 운영해왔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대학 비리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묻고, 잘못된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직된 등록금의 거품으로 인해 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학을 근본적으로 수습해야 나라살림도 덜 추내고, 학생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구조조정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등록금이 제단과 대학 관계자들의 삼진탕처럼 유용되는 길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항아(瓠瓠)는 중국 신화에 달에 산다는 여신이다. 원래는 전설적인 궁수인 예의 아내이자 예와 함께 신이 지만 주신 황제의 노여움을 사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인간이 됐다. 요(堯)의 일 때 태양 열개가 떠 초목이 타 죽는 빈이 나자 예가 해 아홉을 쏘아 떨어뜨려 백성을 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신이 되기를 원하는 항아를 위해

이 어찌 저 달 잡으리(人攀明月不可得) 달 속 흰 토끼는 갈뿔 없이 약방이 찰고(白兔藥杵春) 항아는 홀로 있어 누구와 벗하리(瓠瓠孤瓠與誰)고 노래했다. 중국인들에게 항아는 신비스런 여신으로 숭배의 대상이다. 지난 2007년 10월 24일 중국이 쏘아올린 첫 달탐사 위성도 항아에서 이름을 따 '창하1호'로 지었다. 미국이 1969년 달에 첫발을 디딘

항아(瓠瓠)



아폴로11호에 로마 태양신의 이름을 붙인 것과 비슷한 이치다. 중국이 이번에는 무인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 1호를 도킹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번째로 항우 우주정거장 운영 경험해 볼시약을 혼자 먹고 달나라로 올라가 여신이 됐다. 항아는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에 해당하는 미의 여신이다. '월궁(달나라)의 항아 같다'라는 말은 최고의 미인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태백은 '하늘에 달 있는 지 그 몇 해던가(青天有月幾時) 잠시 간 멈춰 묻노니(我今停杯一問之) 사람

출산정책·예산 효율적인 집행 대책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며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읍시다, 새 생명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며 온갖 캠페인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출산율이 당장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 행정이든 정책이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그것이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결혼과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각 부처가 나눠 갖고 있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세까지 보육은 복지부가 맡고 있고, 3~5세 유아교

육을 담당하는 유지원은 교과부 담당이다. 그리고 2세까지 가정 내 육아의 돌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라고 한다. 사정이 그래서인지 출산율이 높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엇비슷한 대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 각 부처별로 출산정책이나 예산이 적체적소에 얼마나 제대로 배치되고 사용되는지 챙겨봐야 한다. 즉 어느 한쪽으로는 예산이 너무 편중돼있고, 다른 부처의 출산정책 분야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없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출산정책에 쏟아부은 걸로 안다. 하지만, 출산율은 되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반드시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와 화목한 가정의 유지, 젊은 부부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관심, 육아의 부담과 편의성, 사교육비 등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망라해 더 세밀하고 밀도 있는 출산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박중심·목포시 동명동

Table with columns: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김鐘日,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대표 FAX 222-4267, 전화 222-2267, 팩스 222-551, 홈페이지 www.kwangjuilbo.com